

◎ 高句麗古墳壁畫模寫特別展示

國立博物館에서는 五月二十二일부터 六月二十三일까지 一個月間 同館이 所藏하는 高句麗古墳壁畫 二十四點을 特別展示하고 있으며, 이 中에는 日帝末期에 調査되어 아직 國內에서 發表된 일이 없는 中和郡 眞坡里第一號墳壁畫模寫 一四點이 包含되어 있다.

세이론紀行

黃 壽 永

印度의 마드라스에서 세이론의 入國查證을 얻게 된 것은 우리 뉴·델히 公館의 주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印度의 佛敎는 오직 古蹟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며 그것도 昨世紀以來의 考古學發掘의 成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印度旅行을 끝내고 隣接하는 佛敎國을 찾고자 하던 希望은 南印을 돌면서 세이론과의 깊은 관계를 알게 됨에 더욱 堅決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三月十八日 正午가 넘어 마드라스空港을 떠나면서 重壓에서 벗어난 느낌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印度의 風土와 人情이 거칠었던 까닭이라 하겠읍니다. 더욱이 세이론은 印度와 달리 「常綠의 나라」이며 그 서술인 코론보는 大海에 면한 아름다운 都市입니다. 宿舎에 짐을 두고 海岸에 나아가 이 곳 신문에 特報된 故國의 소식을 열려하기도 하였읍니다.

翌日 아침 國立博物館을 찾아서 副館長과 더불어 이 나라의 佛敎美術을 논의하였으며 陳列品을 고투돌아보기도 하였읍니다. 彫刻中 五世紀의 銅製如來坐像一軀는 특히 주목되었는데 그 외의 「힌두敎 作品이나 石彫品들은 南印 彫刻과의 親緣을 보여 주었습니다. 佛殿階段 앞을 장식하던 半月形石(Moon Stone)이 이 나라에서 특히 발달된 것이라고 말하나 그 祖型은 이미 南印의 나가푸루나콘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길 건너 考古局에서는 次長인 실바氏를 찾아서 세이론의 塔과 舍利藏置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는 나의 旅行 스케줄을 마련하여 各地方에 주재하는 管理官에게 연락하여 주었습니다. 考古局은 작은 規模이나 製圖 寫眞圖書의 各室이 정비되어서 印度에서와 같이 英國制度를 계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 午後에는 郊外의 Asokaramayana 寺院을 찾아 塔像과 男女信徒의 禮拜를 보았습니다.

三月二十日 汽車便으로 中部의 高原都市인 칸디에 이르렀읍니다. 一等票를 二等값으로 割引하여 주는 것도 이 나라 觀光施策의 하나입니다. 이 곳에서는 유명한 佛牙寺를 찾아서 建物樣式 특히 木彫刻을 주목하였으며 이곳 王宮址에 건립된 博物館에서는 佛書와 水晶 또는 象牙로 만든 舍利容器를 조사할 수 있었고 歸路에는 페라네니아의 植物園을 찾아 東洋第一이라고 일컫는 넓은 園內의 珍奇한 熱帶植物을 볼 수 있었읍니다.

翌日 배스便으로 시기리아를 向하여 北上하는 途中 다푸라에 下車하여 山上의 石窟寺院을 찾았는데 窟內에 배치된 五十三佛의 巨像들은 곧 우리나라 金剛山 楡帖寺의 金銅像 五十三佛의 傳來事蹟과 우리 古文獻에 보이는 海上을 通한 佛敎文物의 傳來事實을 연상케 하여 주었습니다.

시기리아는 平原 山脈 속에 자리잡고 있는데 一大岩石이 솟아 있어 그 中腹에는 古代壁畫가 保存되었고 頂上에는 建物址가 남아 있었읍니다. 頂上과 壁畫에 이르는 螺旋鐵梯를 오르기에 힘이 들었으나 四方 百餘里의 眺望과 이 곳서 들은 가사과 王의 史實은 인상깊은 것이었습니다.

三月二十二日 첫 배스로 다시 北上하여 十時半 中世의 都邑이었던 포로나푸와에 이르렀읍니다. 이 곳에서는 Vadras 寺院址와 王宮址를 혼자서 돌아 보았습니다. 前者에서는 塔殿址 前面階段 方形塔塔 등이 옛 장엄을 말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寺域에 통하는 中央石階는 흡사 佛國寺를 연상케 함이 있었으며 寺庭에 자리잡은 方形石壇中央의 小石塔과 石欄 石門 등은 곧 梁山 通度寺의 戒壇과 유사함에 놀라기도 하였읍니다. 또 寺域中央의 大塔址는 잘 保存되고 있어서 四方에 배치된 坐像이나 塔을 周回한 石柱와 塔壁의 構造 등은 上屋의 原型을 짐작케 함이 있었읍니다. 王宮址에는 塼築高樓와 石造殿 등 여러 建物址가 넓은 域內에 남아 있었읍니다. 湖畔의 宿舎가 滿員이라 하기에 午後 배스便으로 이 곳을 떠나 四時間만에 北의 아누나다푸라에 이르니 밤이 되었습니다. 沿道에는 貯水池가 많고 稻作이 발달되었으나 아직도 넓은 荒蕪地가 放置되어 있었으며 民家は 거의 草幕으로서 生活程度도 낮아 보였으나 印度에 비하면 安定된 느낌이 있었읍니다. 이 곳 아누나다푸라는 이 나라 上古의 도읍지로서 紀元前後約千年에 걸쳐 佛敎가 융성하던 땅이므로 古蹟과 遺物의 풍부함이란 상상 이상이어서 聖都라고 부

르는 받자를 곧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二日間 博物館을 비롯하여 主要塔址와 寺院址를 돌아 보았는데 특히 大塔들이 거의 옛 규모로 남아 있는 것은 장관이었습니다. 寺院址도 十里四方인 森林중에 散在하고 있는 바 아직도 考古學的發掘이 미치지 못한 곳이 殆半이라고 합니다. 博物館에서는 隣近에서 收拾된 石像 銅像 石壁 碑畫 舍利具 등을 주목하였으며 館長의 설명을 듣기도 하였읍니다. 또 考古局駐在員의 안내로 主要遺跡을 巡回하였는데 Jstavanaramaya, Thuparama, Ruvanvalisey 등 塔은 特別規模가 크고 장엄이 특히 하였읍니다. 이곳에서는 塔을 불러 다가바(Dagaba)라 하는데 그들을 二大別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四方에 石壇을 높이 쌓아 護壁(이것은 Vahalkāda라 부른다)을 이룬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규모는 작으나 일찌기 上屋이 있어서 그를 받던 數列의 石高柱가 周回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上屋의 樣式은 印度에서 보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같은 年代가 오랜 大小의 遺構는 佛塔研究에 있어 매우重要하다 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풍부한 佛敎遺跡이 現存하고 있어 그들이 印度와 의 관련과 아울러 그들의 특색을 지니고 있는 點은 印度와는 달리 오늘에 이르러까지 佛敎文物과 信仰을 지켜온 곳에서도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佛敎初傳의 땅인 미한다를 찾아간 것은 즐거운 일이었읍니다. 이곳은 아누나다푸라에서 東쪽으로 멀리 있으므로 翌二十四日 午前에 往復할 수가 있었는데 中印의 산지와 地勢나 殿塔配置가 서로 달랐읍니다. 丘上에 通하는 二千餘段의 石階는 거의 一直線을 이루었으며, 大小丘頂과 그 사이의 平地마다 圓塔과 寺院이 配置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阿育王子에 의하여 佛法이 傳達된 곳이라 합니다. 이곳 塔中에서도 KANTAKA Chitya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四方의 石築壇과 그彫飾은 南印의 아라바티 또는 산치와도 連脈을 갖고 있다고 느껴졌읍니다.

三月二十五日 아침 印度再入國비사와 뉴·델히까지의 航空票를 入手하여 午後三時가 넘어 코롬보를 떠나 同夜十一時半 뉴·델히에 到着하였읍니다. 이것은 汽車便으로 三日의 旅程입니다. 일찌기 新羅僧 玄遊가 찾았던 師子國의 巡回도 무사히 끝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石窟庵通信(九)

鄭明鎬

一九六一年 八月下旬부터 基本作業에 따라 施行되었던 實測 設計 復元考察等

은 一段落을 지었으며 本工事を 위한 準備期間을 六月末까지로 策定하였다. 이에 따라 四月一日부터 現場의 職員改編이 있어 現場事務는 月城郡 教育科로 引繼되었으며 한편 新倉庫建設資材運搬 道路補修가 이 期間에 實施되었다. 四月初에는 石窟庵에서 茶房이 있는 「만당」까지의 道路補修. 四月九일부터 十九일까지 購入된 資材를 넣을 現場附近에 運搬積載한 五十坪의 木造倉庫를 現 壽光殿下에 세웠다.

四月十五日부터 二十八일까지 十二日동안 추려 四十三臺分의 資材가 運搬되었다. (세멘트 合板 角木 洋釘 鐵絲 柱材 椽木材 鐵筋 等) 氣象觀測을 繼續實施하던 중 四月六日 午後부터 七日 午前에 걸쳐 強한 雲霧가 끼었고 이것이 갑자기 冷却되어 樹氷의 現象을 보이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드문 일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많은 樹木이 強風에 切斷되어 被害가 많았다. 또한 四, 五月에는 繼續된 霜과 甚한 안개로 窟內 周壁諸像表面에 水滴이 發生되었으나 窟外의 溫度와 濕度가 下降하면 即時 乾燥하는 現象을 나타내었다. 이같은 窟内外의 氣象變化에 對應하는 裝置는 必要한 것이다.

四月一日부터는 工事が 없으므로 觀覽客의 便利를 보아 窟內調査에 支障이 없는 限 公開하였으나 다만 日氣不順時는 中止키로 되었다.

- (來窟人事) 3/23 洪思俊, 鄭永鎬, 金和英, 4/8 金元龍監督官, 5/3 文敎部長官, 5/4 交通部長官, 5/5 最高委員, 內閣首班 以下 文敎, 財務, 國防長官, 佛·中國大使, 5/11 金元龍監督官, 5/23 黃翼永監督官, 柳海宗監督官, 李道文化係長, 郇教育課長, 5/28 金載元 國立博物館長, 黃柳 監督官, 林泉 設計委員

資料(續)

瑞山開心寺尋劍堂의 架構

— 本誌三卷十二號 林泉氏의 「瑞山開心寺尋劍堂上椽文」의 補遺—

申榮勳

前記論文에 이미 上椽文과 架構의 一部가 紹介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尋劍堂의 架構規格을 報告하려 한다.

正面三間 側面三間(前記論文中 側面二間은 錯誤인)의 맞배지붕, 단